

## 영적 혼돈의 시대를 걸어가며

추태화 (기학연 실행위원,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올해 2007년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밤거리를 활보하는 이상한 트럭을 보았을 직 하다. 2007년도가 황금돼지띠라 재수도 좋고 재물운이 따를 거라며 황금돼지를 홍보하는 차량이 었다. 작년에는 쌍춘년이 들어있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올해는 재물운이 있는 해라 고 술렁인다. 행복과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고매한 인격을 가 진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일까 회의가 든다. 아니면 어쩌다 영적인 인간이 이렇게까지 세속적이고 비 극적인 상황에까지 떨어졌는가 놀라움과 함께 연민의 마음이 쉬 가지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우상은 진보하고 진화했다. 우상을 허물벗기를 통해 문화와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 미래를 알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상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활보하고 있으니 그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영적 존재인 인간, 그 가능성과 한계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과 공유된 은혜의 속성 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아직도 미망과 무속의 혼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인생들이 창조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그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a).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영성을 태생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 원성을 충족시키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영원성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인간은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른 존재이다. 점과 같이 장래를 예지하고픈 욕망은 왜곡된 영원 성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알 것같이 인간은 자고한다. 하지만 인생은 철저히 한계에 싸여있다. 그것은 아무리 초월 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미래의 한 순간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 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 3:11b). 점과 이에 상응하는 유사기술은 진 화에 진화를 거듭한다고 해도 스스로 속이는 속임수일 뿐이다. 점을 치는 자신도 속고, 점에 기대는 고객도 속이는 한판 사기판이다.

### 현대의 광장, 우상의 전시장

점치는 각종 기술은 이제 시장논리를 터득하여 공중(公衆)으로 파고들었다. 과거에는 도시의 한적한 지역에, 동네에서도 번두리에 자리하던 점집들이 지금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만남의 광장, 백화점, 대형 마트, 영화관, 버스터미널 등 광장으로 광장으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우상의 시장 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울사도가 아테네에서 무명의 신까지 섬기는 시민들을 보 고 경악했듯 지금도 그런 형국이다.

더구나 대중매체가 발달한 현대에 점은 각종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 일간지에 보면 오늘의 운세와 같은 난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애정운, 재물운, 직장운, 결혼운 등등 자세하게도 분류되어있다. 우리 나라 개화기 때만해도 미신타파는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계몽운동의 하나였는데 옛적 미신이 일부 시 민의 환호 속에 광장 중심부로 진입한 것이다. 인터넷이 만개한 지금 점은 사이버공간 어디서도 손쉽게

게 만날 수 있다. 검색창에 점이라 입력하면 연관된 사이트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최첨단 문명 시대에 가장 비합리적인 운세에 기대려는 현대인들의 심리 또한 비참하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귀신과 같이 사는 민족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점이 흥행하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문화역사적인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샤머니즘이 강한 지대에 속해있다. 샤머니즘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종교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 샤머니즘을 사이비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또다른 종교성으로 보자는 이론도 있지만 샤머니즘은 분명 왜곡된 종교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리하여 산이고 들이고 성황당을 지어놓고 지성을 드리며 온갖 종류의 귀신을 섬겨왔다. 장군 귀신, 처녀 귀신, 애기 귀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비짜루 귀신, 달걀 귀신 등 생활에 등장하는 물체를 귀신화했던 것이다. 이는 애니미즘(Animism)의 흔적이 삶 속에 자리잡은 경우라 하겠다. 세간에서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는가. “귀신이 뒹날라.” 이는 금기(禁忌, 터부)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금기는 여러 근거가 있지만 이 경우 분명 귀신을 무서워하는 현대인의 모순된 내면을 보여준다.

둘째 위에서 왜곡된 종교성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샤머니즘은 인간에 내재해 있는 종교성이 본질과 진정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종교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충족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이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종교성은 다른 종교로 정착된 뒤 정당화되며 강화(強化)되고 있다.

셋째 현대의 무속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대인들은 그동안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이성주의와 산업화에 싫증내고 있다. 이는 권태라는 용어로 잘 설명되어진다. 규격화된 틀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잘 하면 문제가 안되었던 시대를 살아오다 이제 회의와 의문이 든 것이다. 이정보다는 감성이고, 현실보다는 환상이며, 과학적이고 즉물적이기 보다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 초월성이 아무리 현대의 트렌드라 하여도 이건 아니다. 다시 말해 점으로 대변되는 무속은 어느 시대에도 혹세무민의 오명을 씻을 수 없다.

넷째 개성시대라는 말이 그 한 이유이다. 직업에 귀천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 현재는 어떤 직업이라도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팽배해 있다. 성매매가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당당히 입성한 것이다. 현대는 왜 안돼(Why not?)라는 반문이 얼마나 자주 쓰이고 있는가. 전에는 눈치보며 점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히 얼굴 내보이며 드나든다. 이러한 눈빛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데.’

다섯째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계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화, 세계화로 진입한 후 경제분야에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다. 퇴직 바람이 불고, 취업의 문이 좁아진 것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문제도 불거져간다. 예전에는 지하도나 거리의 후미진 곳에 낚시 의자를 한 두 개 놓고 사주나 점을 보던 초로(初老)의 연령대가 지금은 청년에 가까운 얼굴이나 여성들로 대폭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무속(巫俗)과 관련된 직업인구를 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니 엄청난 직업군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여섯째 무속이 흥행하는 이유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화산업과 상업성이다. 문화산업은 무차별적으로 소위 돈된다라는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점과 무속에 연관된 자금이 32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상상을 초월한다. 예전에 점집이 풍겼던 읍읍한 분위기를 일대 쇠신하여 산뜻한 인테리어, 디자인 등으로 새단장하고, 장소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문화산업은 누드, 몸짱과 같은 개념으로 몸을 돈으로 바꾸는데 일조하였다면 점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초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준다는 홍보는 믿겨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고객을 낚고 있는 것이다.

### 우상의 광장에서 어떻게

점과 무속이 흥행하는 이유가 다양하니 이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사회적인 대안이다. 현대인들 안에 만연되어 있는 영적 공허감을 어떻게 달래주고 채워줄 수 있는가 고뇌해야 한다. 점과 무속을 찾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그런 사업이 흥행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극복할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 안에 확산되는 허무주의(Nihilism)를 이길 수 있도록 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관을 알려야 한다.

둘째는 교회적인 대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회는 성장주의에 매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성경공부, 제자훈련, 전도와 선교, 부흥, 성령체험 등과 같은 영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교역자들은 성장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였으니 평신도들의 내적 상황을 세심하게 들여다 볼 틈이 없었다. 평신도들 또한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보다는 개교회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교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체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라는 단순한 메시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면이 많았다고 본다.

개교회들은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의문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훈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평신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얻게 되는 수많은 고뇌가 한 주의 한편 설교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들”을 나누는 소그룹을 만들고 그들이 서로를 돕고 영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숙케 해야 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다시 일어나 평신도들을 감동시킬 때 그들은 영똥한 데에 눈 돌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영적 성숙이 혼돈과 유희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길이라 본다.

© 이 글은 '빛과 소금' 3월호에 실렸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